

3. 자금흐름

〈글로벌동향〉

- ◆ 2018년 2/4분기말 글로벌 자금유입은 선진국으로의 순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증가세를 지속
- ◆ 2018년 2/4분기중 은행을 통한 국가간 자금이동규모는 선진국 및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모두 감소되며 축소로 전환
- ◆ 2018년 3/4분기중 선진국 및 신흥국의 주식 및 채권펀드의 순자금유출 규모는 전분기보다 확대

〈국내동향〉

- ◆ 2018년 2/4분기중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가계 부문의 순자금운용 규모 축소 및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 확대로 전분기보다 축소
- ◆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 및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

가. 글로벌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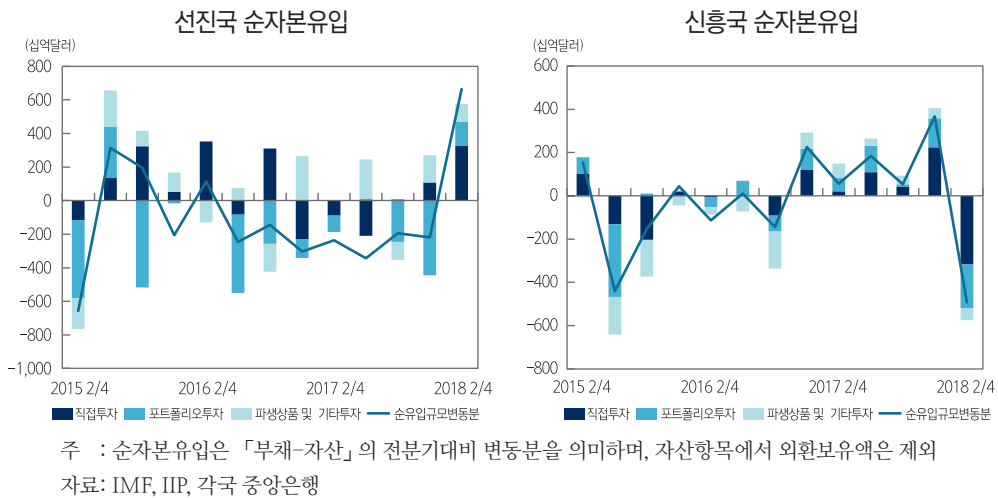
1) 국제투자자금 유출입

- 2018년 2/4분기말 전세계 42개국¹⁾의 국제투자자금 순유입(「부채-자산」잔액) 규모는 3.1조달러로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
 - 순자금유입규모는 전분기대비 5.9% 증가한 3.1조달러를 기록
 - 자산 부문별로는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및 FDI 순유출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0.6% 및 2.9% 축소된 반면 파생상품 및 기타투자의 순유입 규모는 전분기대비 2.3% 확대

1) 2016년 4분기까지 IIP자료가 공개된 국가를 대상으로 선진국 18개국 및 신흥국 24개국으로 구성. 선진국에는 오세아니아 2개국, 유럽 11개국, 북미 2개국, 아시아 3개국 등 총 18개국을 포함하며, 신흥국은 중동 3개국, 유럽 11개국, 남미 5개국, 북미 1개국, 아시아 4개국 등 총 24개국을 포함

□ 지역별로는 선진국 국제투자자금 잔액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하였으며 신흥국은 순유입 규모가 대폭 축소

- 선진국의 국제투자자금 순유입 잔액은 2.0조달러로, 2016년 3/4분기 이후 최초로 순유입 전환
 - 포트폴리오투자 순유입 규모가 확대(전분기대비 1.8%) 전환되었으며 파생상품 및 기타투자 순유입 규모는 확대(전분기대비 6.5%)를 지속, FDI 순유출 규모는 축소(전분기대비 -8.3%)
- 지난분기 크게 확대되었던 신흥국으로의 국제투자자금 순유입 규모는 포트폴리오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축소(전분기대비 31.8%)되어 1.1조달러를 기록
 - 포트폴리오투자(전분기대비 -8.9%), FDI(전분기대비 -8.8%), 파생상품 및 기타투자(전분기대비 -9.5%) 모두 순유입 규모가 큰 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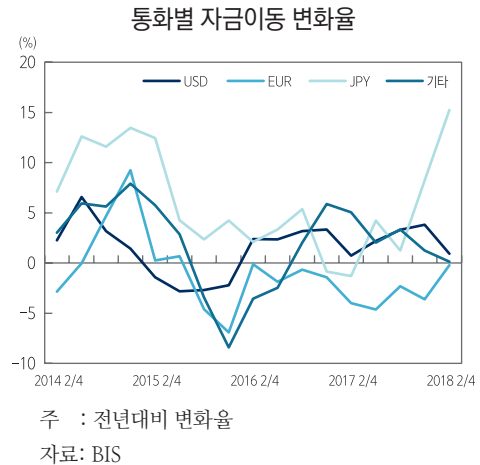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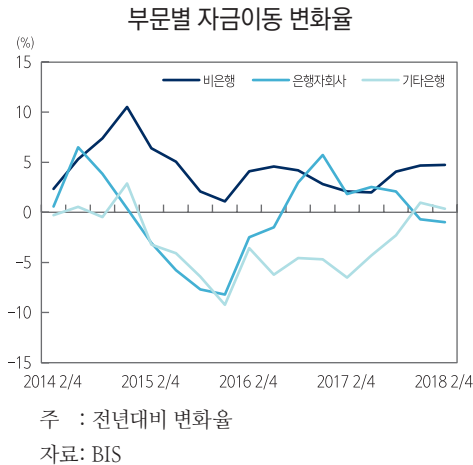


2) 국가간 은행자금이동

□ 2018년 2/4분기 은행을 통한 국가간 자금이동규모는 29.5조달러를 기록하며 축소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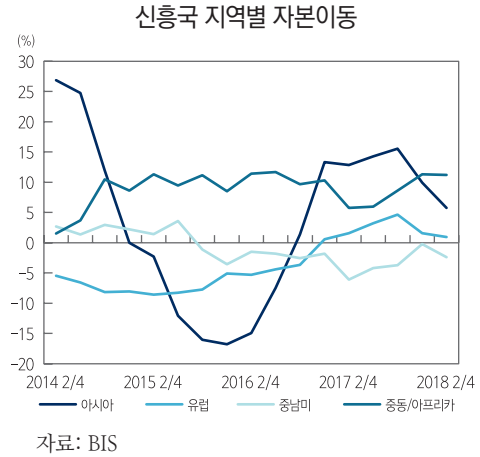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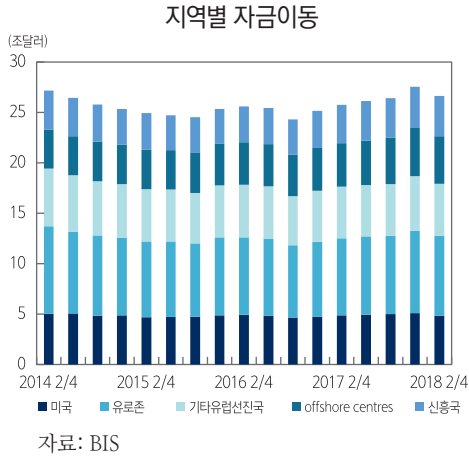
-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여온 국가간 은행자금 이동규모는 전분기대비 3%(0.9조달러) 축소

- 부문별로는 전분기대비 비은행이 2.3%(3,152억달러), 은행자회사 3%(2,938억달러), 기타은행이 4.8%(2,937억달러) 감소
- 통화별로는 미달러화 및 유로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전분기대비 각각 2.8% 및 4% 감소하였으며, 엔화를 통한 자금조달은 소폭(1.1%) 증가



□ 2018년 2/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자금유입 규모는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

- 선진국으로의 자금유입 규모는 미국 및 유럽으로의 자금유입이 모두 감소되어 전분기 대비 3.5% 축소된 20.3조달러를 기록
 - 전분기대비 미국 -5.0%, 유로존 -3.2%, 기타유럽선진국 -4.3% 등
-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규모는 전분기보다 2.3% 축소된 4.0조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모든 지역에서 전분기보다 감소를 보임
 - 중남미로의 자금유입이 전분기대비 -5.4%, 신흥유럽 -4.3%, 신흥아시아 -1.3%, 중동 및 아프리카 -0.9% 등



3) 펀드자금 흐름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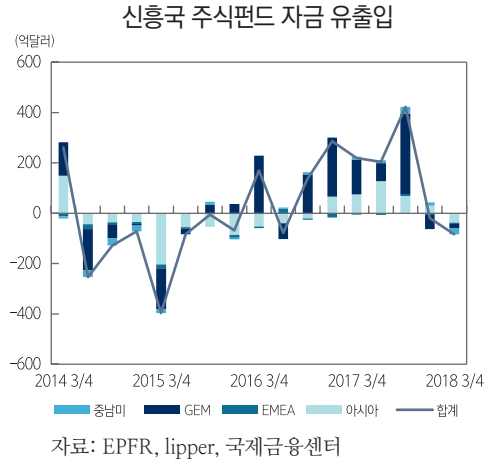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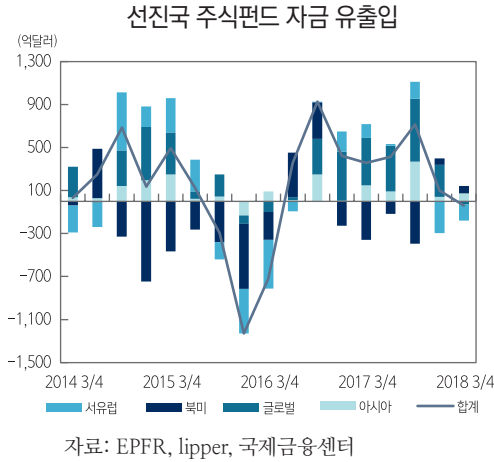
□ 2018년 3/4분기 선진국 주식펀드는 북미 지역으로의 순자본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순자본유출로 전환

- 북미 지역은 미국 IT 섹터로의 자금유입 지속, 서유럽에서 이탈한 자본의 미국 시장 유입 등으로 전분기보다 순자본유입 규모가 확대
- 서유럽 지역은 터키 금융불안 여파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은행 부실,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지난분기에 이어 순유출을 지속
- 아시아 지역은 일본의 양호한 경제 상황 등에 힘입어 순자본유입을 지속

□ 2018년 3/4분기 신흥국 주식펀드는 미·중 무역분쟁, 달러강세 지속 등으로 순자본유출 규모가 전분기보다 크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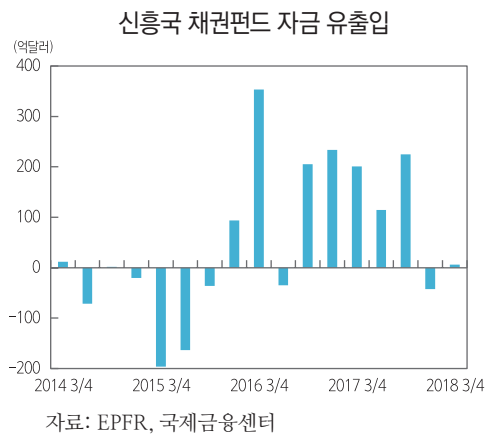
- 아시아 지역은 미·중 무역분쟁 격화 및 이로 인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으로 순유출로 전환
- 전체 신흥시장(GEM)은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으로 신흥국의 주가 및 통화 약세 지속, 실물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순유출 규모가 확대

2) 금번호부터 펀드자금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lipper(그래프는 2018년 1/4분기부터 lipper 데이터를 사용)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바뀌게 되어 일부 분석 자료값이 이전호와 달라짐



□ 2018년 3/4분기 글로벌 채권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크게 확대

- 선진국 채권펀드로의 자금유입 규모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확대
 - 미국의 금리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북미 펀드로 자금 유입이 확대
 - 서유럽 펀드는 터키 금융불안, 브렉시트, 이탈리아 불안 등으로 큰 폭 유출
- 신흥국 채권펀드는 무역분쟁 및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흥국 채권 저평가 인식 등으로 순유입으로 전환
 - 일부 국가를 제외한 주요 신흥국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에 따라 우수 등급채 위주의 저가 매수세 확대



연구위원 김한수 (02-3771-0623, hanskim@kcmi.re.kr)

선임연구위원 김보영 (02-3771-0638, bykim98@kcmi.re.kr)

나. 국내동향

1) 경제주체별 자금의 조달과 운용

□ 2018년 2/4분기중 국내부분의 순자금운용(자금운용액 - 자금조달액) 규모는 14.0조원으로 전분기보다 축소

-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축소된 반면 일반정부 및 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확대
-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보다 확대

□ 2018년 2/4분기중 기업부분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규모는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

- 자금조달은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모두 축소되어 전분기대비 33.3조원 축소
 - 특히 채권발행이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(5.9조원→0.4조원)
- 자금운용은 금융기관예치금 및 채권 운용이 감소로 전환되며 전분기보다 규모가 크게(38.8조원) 축소
- 순자금조달 규모는 15.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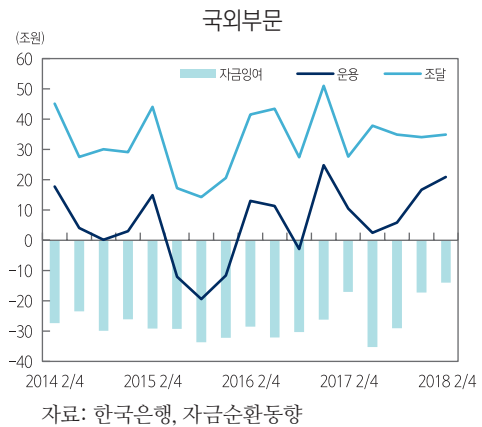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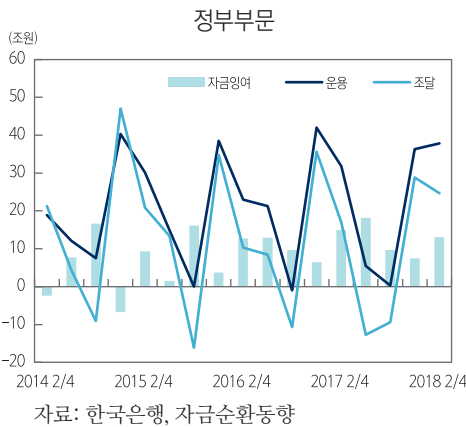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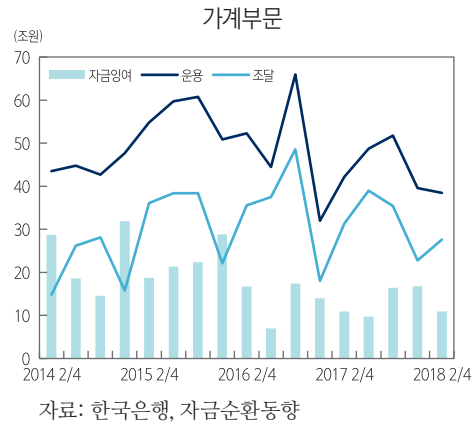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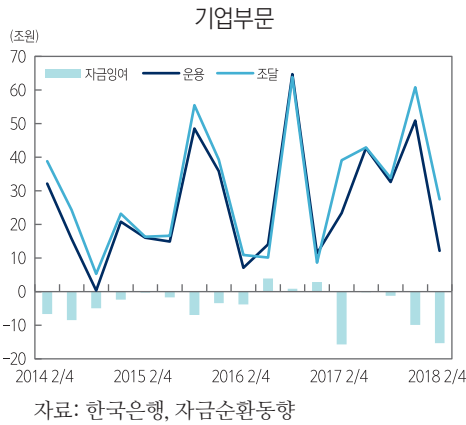
□ 2018년 2/4분기중 가계부분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보다 확대된 반면 자금운용 규모는 축소

-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확대(22.8조원→27.6조원)
- 자금운용 규모는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의 운용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예치금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축소(39.6조원→38.5조원)
- 순자금운용 규모는 11.0조원으로 전분기보다 축소

□ 2018년 2/4분기중 정부부분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축소된 반면 자금운용 규모는 확대

- 자금조달 규모는 국채발행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축소(28.8조원→24.7조원)
-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예치금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확대(36.3조원→37.8조원)
- 순자금운용 규모는 13.1조원으로 전분기보다 확대

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



2) 기업의 자금조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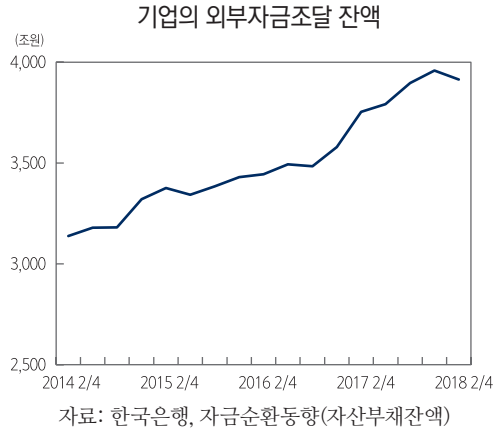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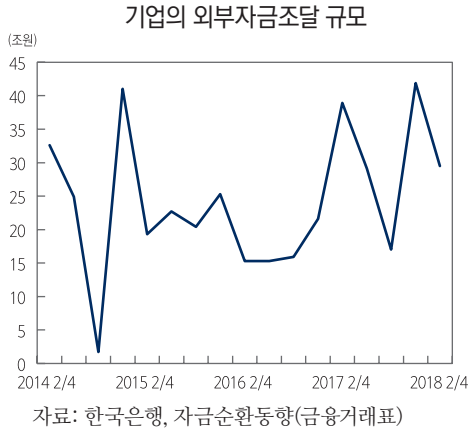
가) 외부자금조달

□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상거래신용을 제외한 자금조달 규모는 29.5조원으로 전분기보다 크게 축소

-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8.7조원으로 채권 및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
-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.8조원으로 금융기관차입금 및 정부용자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

□ 2018년 2/4분기말 기업의 상거래신용을 제외한 외부자금조달 잔액은 6분기만에 감소로 전환

— 주식 및 출자지분, 기업어음 등의 잔액이 감소로 전환되며 3,915.2조원을 기록



나) 자금조달 구성

□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규모는 채권, 주식, 차입금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

— 채권(회사채 및 기업어음)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장기채 발행 및 기업어음 발행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축소된 0.4조원

• 단기 기업어음 발행이 전분기보다 감소(2.7조원→0.3조원)한 반면 단기채 발행은 증가(-1.2조원→4.9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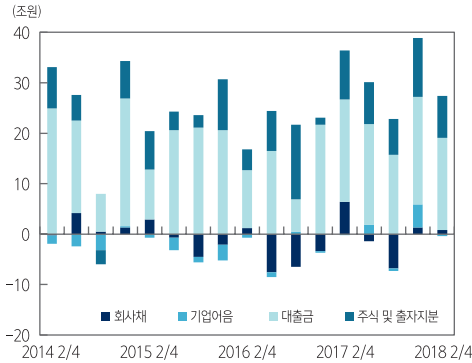
—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대비 축소된 8.3조원

—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는 단기대출금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축소된 18.3조원

□ 2018년 2/4분기말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별 잔액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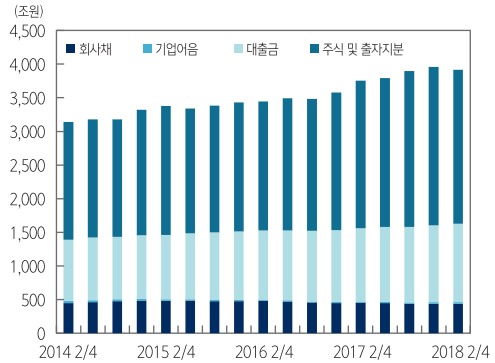
— 주식 및 출자지분 잔액은 코스피 대형 상장사의 주식발행 급감으로 전분기보다 67.7조원 감소

자금조달 수단별 구성


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금융거래표)

자금조달 수단별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자산부채잔액)

다) 대출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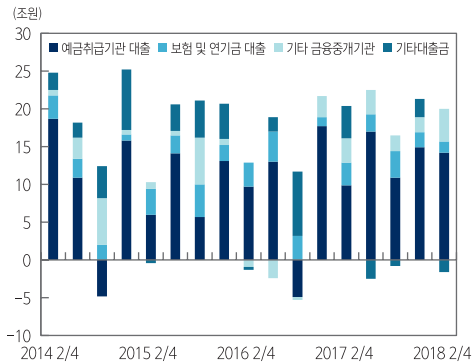
□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대출금 규모는 전분기보다 축소

- 예금취급기관의 단기 대출금이 전분기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대출금 규모가 18.3조원으로 축소
- 금융기관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모두 축소

□ 2018년 2/4분기말 기업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보다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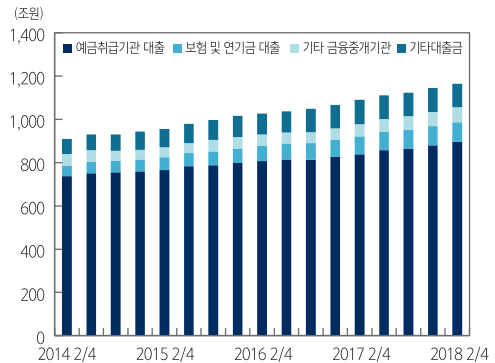
- 대출금 잔액은 1,164.8조원으로 기타대출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잔액이 전분기보다 증가

금융기관별 기업 대출 규모


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금융거래표)

금융기관별 기업대출금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자산부채잔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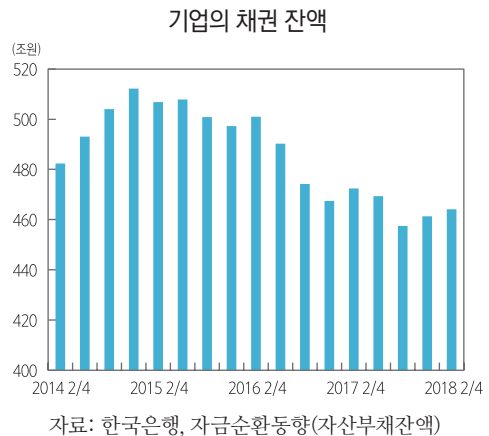
라)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

□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보다 축소

-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장기채가 감소(-)로 전환되며 축소
- 기업어음은 단기 기업어음 축소 및 장기 기업어음이 감소(-)로 전환되면서 자금조달 규모가 전분기보다 축소

□ 2018년 2/4분기말 채권 미상환 잔액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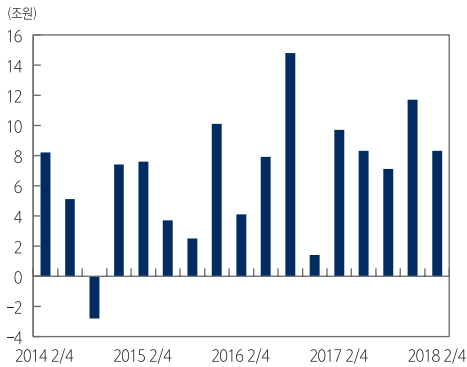
- 회사채 잔액은 441조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기업어음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23.1조원



□ 2018년 2/4분기중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보다 축소되었으며 분기말 잔액은 감소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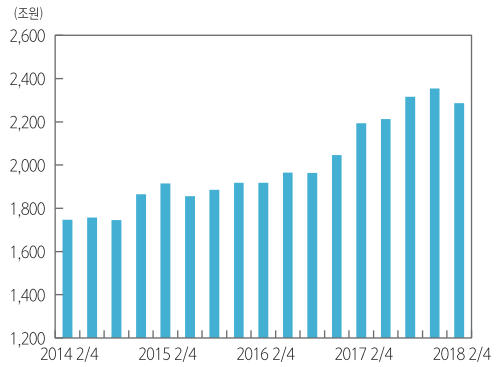
- 대부분의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가 코스닥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보다 감소한 8.3조원을 기록
 - 기업공개는 모두 코스닥 중소기업으로 1,168억원(8건) 규모
- 2/4분기말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잔액은 2,286.3조원을 기록하며 감소로 전환

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발행 규모


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금융거래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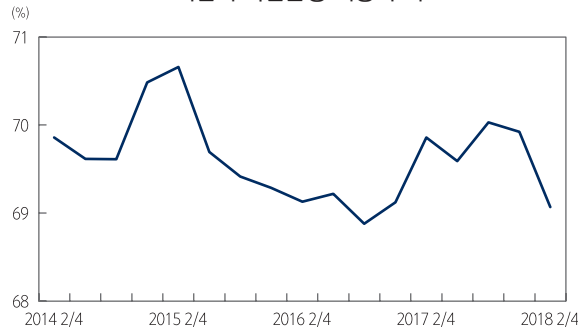
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자산부채잔액)

□ 2018년 2/4분기 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은 전분기에 이어 감소를 지속

기업의 직접금융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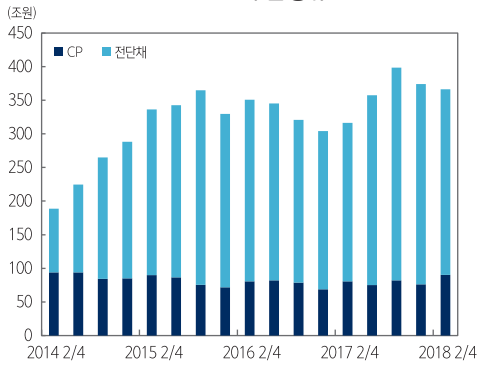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자금순환동향(자산부채잔액)

마) CP·전단채 발행 실적

□ 2018년 2/4분기 기업의 CP 및 전단채 발행규모 및 분기말 잔액이 모두 전분기보다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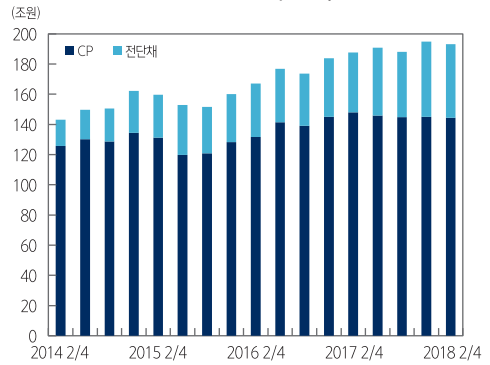
— 발행규모는 전단채를 중심으로 축소되어 366.3조원, 분기말 발행잔액은 193.1조원을 기록

CP·전단채 발행규모



자료: 금융감독원

CP·전단채 잔액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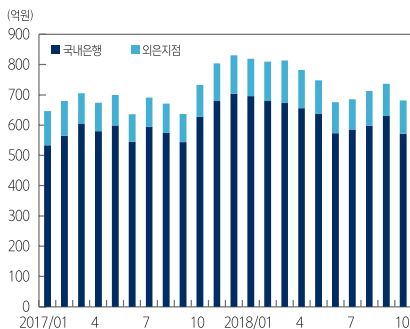
선임연구위원 김필규 (02-3771-0631, pkkim@kcmi.re.kr)

선임연구원 김보영 (02-3771-0638, bykim98@kcmi.re.kr)

자금흐름 주요 이슈: 최근 거주자 외화예금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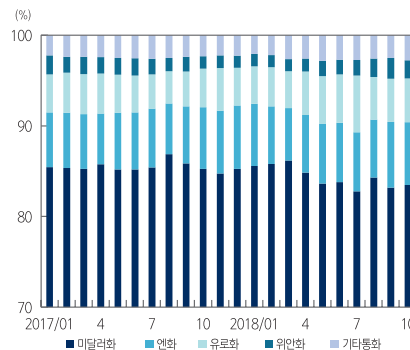
- 지난해 말 800억달러를 상회하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금년들어 환율상승 등으로 700억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
 - 특히 6월말에는 전월대비 감소폭이 최근 2년내 최대(71.7억달러)를 기록
 -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0월말 기준 전년말대비 18% 축소된 681.1억달러를 기록
- 통화별로는 전년말대비 달러화 및 엔화 예금은 감소하였으나 위안화 예금은 증가
 - 2018년 10월말 기준, 전체 외화예금 중 미달러화가 83.5%를 차지하며 엔화는 6.9%, 유로화는 4.8%, 위안화는 2%의 비중
 - 6월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미·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화를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크게 감소
 - 기업의 현물환 매도 확대, 개인의 외화예금 인출 등
 - 최근 원화약세로 엔화 예금은 달러화와 유사한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화 예금은 전년말대비 소폭 감소
 - 반면 위안화 예금은 최근 2년내 최고치(9월)를 기록하며 지난해말 이후 큰 폭(20% 이상)으로 증가
 - 2016년 하반기 이후 낮은 위안화 예금금리 지속 및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급감

거주자 외화예금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

거주자 외화예금 통화별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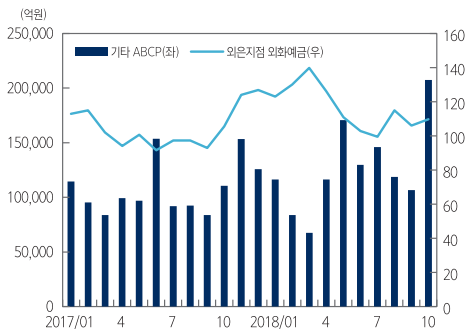
□ 전체 외화예금 중 기업예금의 비중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감소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개인예금은 증가

- 기업의 비중은 환율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초 83.4%에서 금년 6월말 78.9%로 축소
- 지난해 원화강세로 개인의 외화예금 수요가 금년 5월까지 꾸준히 증가
 - 6월 이후 일부 시세차익 실현 등으로 감소

□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이 대부분(80% 이상)이며 2015년 이후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은 정기예금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활용

- 2018년 1분기 전체 외화예금 잔액은 감소하였으나 외은지점은 증가세를 보임
 - 같은기간 달러화, 엔화, 위안화를 제외한 기타통화 예금이 증가
- 2015년 이후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은 정기예금 유동화증권(ABCP)의 기초자산으로 일부 활용
 - 중국계은행(2014~15년) 및 중동계은행(2016년 이후)의 달러화 정기예금(3개월 및 6개월만기)을 기초자산으로 한 외화정기예금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
 - 최근 터키 등 중동발 금융 불안으로 카타르국민은행 및 아랍에미리트은행 등의 달러화예금이 급감
 - 2018년 상반기에는 스위스프랑화 및 덴마크크로네화 예금이 기초자산으로 편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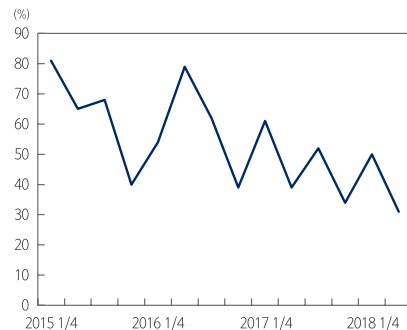
외은지점 외화예금 및 기타 ABCP 규모



주 : 1) 기타ABCP는 정기예금 등을 기초로 발행한 ABCP규모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

정기예금 ABCP 중 외화예금 비중



주 : 1) 외화예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화예금을 기초로 발행한 ABCP

2) 달러화, 위안화, 기타(홍콩달러화, 유로화, AED화 등)

자료: 나이스신용평가